상업화 역풍…돈보다 질로 '공감' 잡아라!

겨울연가 10년 한류 10년

1. 배용준이 말하는 한류
2. 한류의 힘, 스타를 얻다
3. 한류 현장을 가다
4. '신대륙'의 꿈
5. 미래 10년의 주역을 만나다
6. '포스트 한류', K-컬처로 간다

한류를 그저 '돈벌이'로 보는 지나친 상업적 경향은 10년 동안 공들인 한류라는 탑을 무너뜨리고 일방적인 문화 전파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진은 가장 한국적인 코드로 '문화는 공감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가수 싸이의 프랑스 파리 공연. AFP·연합뉴스

#1 '2001년 1125만→2002년 1459만→…→2005년 7599만→2006년 2451만→2007년 2439만→…→2009년 1412만 달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액 흐름(영화진흥위원회)이다. 한국영화는 2000년대 초반 새 중흥기에 들어서며 1000만 관객 영화를 탄생시키는 등 호황을 맞았다. 하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상당 기간 침체를 겪었다. 빈약한 스토리, 장르의 편중, 거품 투자자본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이는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본 수출 비중이 크게 줄어 2006년엔 전년 대비 무려 82.8%나 급감했다. 한류스타 주연작들이 고가에 팔렸지만 현지에선 흥행에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흥행작들조차 해외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일본 방송국의 한국 드라마 편성 현황' 자료, 이하 일본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NHK의 '동이'와 '시크릿가든'을 비롯해 TBS, TV도쿄 등 지상파와 위성방송 등 모두 30개 채널이 229편의 한국 드라마를 방송 중이다.

일본사무소는 "한일관계 악화 이후 한국 드라마 편성 감소가 예상됐지만 편성량은 다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작년 8월 이후 후지TV '한류 알파' 편성 중단, 독도 수영횡단 프로젝트의 송일국 주연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강력반' 등 편성 교체를 제외하고 한일관계 악화 여파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사무소는 이를 "이미 구매한 작품의 소화 혹은 라인업 유지에 따른 편성 증가 가능성"으로 봤고, "DVD 시장의 급격한 축소, 드라마 구매가의 상승, 엔저 현상의 지속" 등이 "일본의 한국 드라마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구매력 감소를 예상"하게 한다고 썼다.

두 가지 지표는 한류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듯하다.

영화 수출액 흐름은 국내 흥행과 산업 상황에 따라 곡선을 그린다. 2010년까지 감소세의 수출액은 2011년부터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2017만달러였다. 실제로 '부러진 화살' '범죄와의 전쟁:나쁜놈들 전성시대' '건축학개론' 등을 시작으로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에 이르며 한국영화가 다시 흥행했던 때다. 물론 이들 영화들이 해외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돼 현지 개봉을 통해 흥행한 건 아니다. 하지만 국내 흥행과 시장의 호황은 결국 콘텐츠의 질을 높이면서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고 이를 통해 커진 시장은 다시 해외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 방송사의 한국 드라마 편성 현황에선 한류의 지나친 상업적 경향과 향후 불안정한 전망을 읽을 수 있다. 현지에서는 "한국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한류 에이전트는 "일본 측이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에 수입액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류스타를 앞세운 드라마를 고가에 샀지만 별 시선을 끌지 못했고 더 이상 비싼 값에 드라마를 살 명분이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부 아이돌 그룹을 빼곤 대부분의 케이팝 스타들도, 적어도 일본에서는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만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 뿌리내린 한류는 이제 일상적 문화가 됐다고 말한다. 예전처럼 폭발적인 관심은 없지만 일상에서 한국문화에 익숙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닛칸스포츠 쿠보 하야토 편집장은 "한국 가수든, 드라마든 취향에 맞고 재미있으니 보고 듣는 것이다. 더 이상 한국 드라마, 음악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대신 이제 일반적인 문화현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日 "한류,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상"
일부 아이돌 빼곤 인기가 예전만 못해

국가브랜드 하위권 '한류 지속' 적신호
지나친 상업성…일방적 문화전파 우려
질 좋은 콘텐츠로 '문화적 공감' 얻어야

더 구체적인 지표 하나. 지난해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국가브랜드 지수 모델'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브랜드(2011년 기준)는 실제 15위, 이미지 19위다. 이전 3년치와 비교해 실체는 상승세이지만 이미지는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실체 측면에서 유명인과 현대문화는 각각 세계 10위권이지만 이미지면에서는 20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따라서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회의하게 한다고 조사 주체 측은 밝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상업적 경향을 꼽는다. 김대규 디지코아㈜ 대표는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인 태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좋지 않다. 하나 더 팔아서 돈 좀 더 벌어 보자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류스타 장근석도 "한류를 단순히 티켓 장사, 돈벌이로만 보는 일부의 욕심이 아쉽다"고 말한다.

이런 상업성은 일방적인 문화 전파의 우려를 낳는다.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는 "이미 다양한 장르의 한류 콘텐츠가 일본에 유입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면서 각국이 고유의 문화 산업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여전히 한류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굳이 경제적 지표를 나열하지 않아도 한국 문화콘텐츠는 미국과 유럽, 중남미 등으로도 퍼져가고 있다. IT기술을 발판 삼은 SNS 등을 통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시장도 넓어졌다. 김영민 대표는 "문화의 힘은 막지 못한다.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는 여전히 시장성을 갖고 있고 전망도 밝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좋은 콘텐츠의 힘"이 더욱 중요해졌다.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김대규 대표)해 "이제부터는 작품"(쿠보 편집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팝 음악을 그럴 듯하게 '흉내낸' 아이돌그룹과는 달리 서구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 싸이가 '한국적인 것'이라는 새로움을 보여줬다."

결국 위 두 지표가 말해주듯, 한류와 관련해 국내에서 성공한 콘텐츠에서 출발하고, 일방적·상업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문화는 공감이다"('한류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재인용)는 명제를 되새겨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그것이 알고 싶다 '짝' 출연자 선정 방법은?

출연료는 금기…묻는 순간 '아웃'

짝 없는 출연자 12명이 진정한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SBS 리얼 프로그램 '짝'. 출연자가 연예인이 아니어서 시청자의 호기심은 더 높다. 그렇다면 짝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출연할 수 있는 것일까?

출연을 원한다면 정부 장관급 관료처럼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작진은 출연 요청자들의 참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학력, 직업 등 인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 자체 선발된 참가자들은 제작진과 40~50분의 사전 인터뷰를 진행한다. 면접인 셈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최종 12명을 선발한다. 그렇다고 "출연료는 얼마냐"고 묻는 것은 금물. 제작진은 그런 참가자는 "무조건 탈락"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짝을 찾겠다는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연료는 없다"고 잘라 말하지만 녹화 뒤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100만원 정도다. 일주일 정도 촬영을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거나 본업에서 잠시 손을 놔야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셈이다. 사실 이 금액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ON AIR 채널A 밤11시 **웰컴 투 시월드**

김세아 "시댁은 클래식 들으며 소맥"

28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채널A '웰컴 투 시월드'에선 '고부의 버릇'이라는 주제로 시월드와 며느리월드가 서로 못마땅한 습관이나 버릇을 둘러싸고 토크 전쟁을 펼친다.

연기자 김세아(사진)는 우아한 음악가 시댁 식구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세아는 "시댁이 음악가 집안이라 항상 고상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소개한다. 집안의 음주문화를 묻자 그는 "정말 독특한데, 고상하게 클래식을 들으시면서 소맥(소주+맥주)을 드신다"며 "소맥을 한 번 말아보렴"이라고 말하는 우아한 시어머니의 말투를 흉내 내 웃음을 선사한다. 김세아 외에도 박수림, 김지선, 이승신 등이 출연해 각종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털어놓는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책 랭킹

1위 책 정보보기

3월 3주, 자료:교보문고

순위	제목	작가	출판사
1	꾸뻬씨의 행복여행	프랑수아 를로르	오래된미래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스님	쌤앤파커스
3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아포리아
4	김미경의 드림 온	김미경	쌤앤파커스
5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샘 혼	갈매나무
6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7	그래도 사랑하라	전대식	공감
8	언니의 독설	김미경	21세기 북스
9	갈림길	윌리엄 폴 영	세계사
10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싶다	이근후	갤리온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TV 프로그램 28일 (목)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8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널 A
5:10 웰컴 투 시월드⑮㊋
6:20 갈 데까지 가보자㊋
7:30 채널A 아침뉴스
8:00 다섯 남자의 오 머니
8:50 신문으로 보는 세상
9:40 웰컴 투 시월드⑮㊋
10:50 논설주간 세상보기-황호택의 눈을 떠요
12:00 뉴스현장
1:00 달자의 봄㊋
2:10 김광현의 탕탕평평
3:30 이언경의 직언직설
4:50 박종진의 쾌도난마
CHANNEL A 채널A 다시보기 www.iChannelA.com
6:20 뉴스와이드
7:30 분노왕⑮㊋
8:40 생방송 오픈 스튜디오⑮
9:50 채널A 종합뉴스
11:00 웰컴 투 시월드⑮
12:10 박종진의 쾌도난마㊋
※1:40 스타일 A㊋
2:40 관찰 카메라 24시간㊋

KBS1
5:10 내 고향 스페셜-한국재발견
6:00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TV동화 빨간 자전거
11:00 러브 인 아시아Ⓓ㊋
11:55 바른 말 고운 말
12:00 뉴스12
1:00 KBS걸작선-매리는 외박중Ⓓ⑮㊋
2:00 뉴스
2:10 걸어서 세계속으로Ⓓ㊋
3:00 아름다운 사람들㊋
3:10 세상사는 이야기-청주㊋
4:00 오늘의 경제
4:10 네트워크 특선-세상을 잇는 담쟁이
5:00 뉴스5/20 동물의 세계Ⓓ
5:40 세상은 넓다
6:00 6시 내 고향
6:55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7:00 뉴스7
7:30 한국인의 밥상
8:25 일일연속극-힘내요 미스터 김⑮
9:00 뉴스9
10:00 공사창립 40주년(공부하는 인간-호모 아카데미쿠스 제5편)
10:50 아름다운 사람들
11:00 뉴스라인/40 현장르포 동행
12:30 뉴스
12:40 TV미술관
※1:30 걸작다큐멘터리㊋
2:30 네트워크-이야기 하하하

KBS2
6:00 굿모닝 대한민국〈1, 2부〉
8:00 아침 뉴스타임
9:00 TV소설-삼생이⑮
9:40 여유만만⑫
10:50 지구촌 뉴스
11:10 스포츠 타임
11:20 사랑의 가족
11:50 위기탈출 넘버원㊋
1:00 출발 드림팀 시즌2⑫㊋
2:10 VJ특공대㊋
3: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3:30 KBS뉴스타임
3:35 후토스-하늘을 나는 집㊋
4:00 와글와글 꼬꼬맘㊋
4:30 TV유치원㊋
5:00 두리둥실 뭉게공항㊋
5:30 영상앨범 산㊋
6:00 KBS뉴스타임
6:10 생생 정보통〈1, 2부〉
7:45 일일시트콤-일말의 순정⑮
8: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8:50 황금 카메라
10:00 수목드라마-아이리스2⑮
11:20 해피 투게더⑮
12: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5 세상의 모든 다큐Ⓓ

MBC
5:10 다문화희망프로젝트-우리는 한국인
6:00 뉴스투데이〈1, 2부〉
7:50 아침드라마-사랑했나봐⑮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⑮
11:00 특별기획-구암 허준⑮㊋
11:35 컬투의 베란다쇼 스페셜⑮
12:00 정오뉴스
12:20 우리는 한국인 스페셜
1:10 201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한마음 에어로빅 축제
3:00 3시 경제뉴스
3:10 똑딱아저씨 베스트
4:00 어린이 동물구조대
4:30 아웅다웅 동화나라
5:00 MBC이브닝 뉴스
6:20 고향을 부탁해⑫
7:15 일일연속극-오자룡이 간다⑮
7:55 MBC뉴스데스크
8:50 특별기획-구암 허준⑮
9:25 컬투의 베란다쇼
9:55 수목미니시리즈-7급 공무원⑮〈마지막회〉
11:15 황금어장-무릎팍도사⑮
12:35 뉴스24
12:55 스포츠 다이어리
※1:10 MBC특선다큐멘터리〈0313 끝나지 않은 이야기〉Ⓓ

SBS
5:10 굿모닝 510-세계도시락여행
6:00 모닝와이드〈1, 2, 3부〉
8:30 아침연속극-당신의 여자⑮
9:10 좋은아침⑮
10:30 뉴스
11:00 SBS생활경제
12:00 12뉴스
12:30 SBS컬처클럽
1:30 잘 먹고 잘사는 법 스페셜
2:00 뉴스
2:10 자기야⑮㊋
3:10 전파왕⑮㊋
4:00 매일 엄마
4:30 꾸러기 탐구생활
5:00 뉴스퍼레이드
5:30 날씨와 생활
5: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05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드라마-가족의 탄생⑮
8:00 SBS 8뉴스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⑫
10:00 드라마스페셜-그 겨울, 바람이 분다⑮
11:20 자기야⑮
12:40 SBS토론공감
※2:10 나이트 라인
2:30 땡큐⑮㊋

TV조선 02-2180-1114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02-526-2000 ㊋재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TV조선
5:00 장성민의 시사탱크㊋
6:10 대찬인생⑮㊋
7:10 홍혜걸의 닥터 콘서트〈수면 편〉㊋
8:10 시사토크 판㊋
8:50 TV조선 뉴스와이드 '활'〈1, 2부〉
10:50 코리아 헌터⑮㊋
11:50 속사정⑮㊋
12:50 유연채의 뉴스의 '눈'
1:50 TV조선 뉴스와이드 '참'〈1, 2부〉
3:50 신율의 시사열차
4:50 장성민의 시사탱크
6:00 박찬희 정혜전의 황금 펀치
6:50 아시아 헌터⑫㊋
7:50 모녀기타⑮㊋
8:50 홍혜걸의 닥터 콘서트〈유방암 편〉㊋
9:50 TV조선 뉴스쇼 '판'
11:00 아내는 모른다⑮
12:30 속사정⑮㊋
※2:00 가족, 두 개의 문⑮㊋
3:00 월드특선다큐〈신비의 섬 갈라파고스〉㊋

JTBC
4:40 위험한 마음⑮㊋
5:40 힐링 국선도
5:50 특별기획-무자식 상팔자Ⓓ⑮㊋
7:00 웃어라 대한민국
9:00 특별기획-무자식 상팔자Ⓓ⑮㊋
10:10 일일드라마-가시꽃⑮㊋
10:50 신의 한 수⑮㊋
12:00 JTBC뉴스 정오의 현장
12:20 구석구석 동네왕㊋
1:10 여보세요⑮㊋
2:20 히든싱어〈조관우 편〉㊋
3:50 일일드라마-가시꽃⑮㊋
4:30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
5:40 JTBC뉴스 이브닝
6:00 남자의 그 물건⑮㊋
7:10 쇼킹 70억⑮
8:10 일일드라마-가시꽃⑮
8:50 JTBC뉴스9
9:40 쨍하고 공뜬 날
9:50 당신을 구하는 TV-우리는 형사다⑮
11:00 썰전⑮
12:10 닥터의 승부⑮㊋
※1:20 김국진의 현장박치기⑲㊋
2:20 팝콘과 나초⑮㊋

MBN
6:00 휴먼다큐〈사노라면〉㊋
7:00 굿모닝 MBN
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9:00 세상의 눈 오늘의 눈
10:30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 공감
12:00 MBN정오뉴스
12:50 미시의 시사데이트〈1, 2부〉
2:50 시사마이크〈1, 2부〉
4:50 고승덕의 집중분석
6:00 고수의 비법 황금알⑮㊋
7:00 엄지의 제왕⑮㊋
8:00 MBN뉴스8
9:00 속풀이쇼 동치미⑮㊋
10:00 리얼다큐〈숨〉
11:00 천기누설⑮
12:10 나는 자연인이다㊋
※1:10 고승덕의 집중분석㊋
2:10 현장르포 특종세상⑮㊋

EBS
5:00 월드뉴스 리뷰
5:50 영자신문 읽기
6:00 건강한 아침
6:10 한국기행㊋
6:30 미래 직업, 뜨는 직업
7:00 곤㊋/15 바두와 친구들㊋
7:30 마야의 모험㊋
7:45 부릉부릉 브루미즈㊋
8:00 딩동댕 유치원
8:20 시계마을 터키톡㊋
8:35 꼬마버스 타요㊋
8:50 춤추는 곰, 콩야
9:05 방귀대장 뿡뿡이
9:15 뚜바뚜바 눈보리
9:30 파들리팜㊋/40 깨미
9:55 지구를 지켜라
10:1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5 부모〈친정엄마와의 갈등〉
12:10 다큐프라임㊋
13:05 연중기획-폭력없는 학교
14:05 버블버블 인어친구들
14:30 몬스터 수학나라
15:00 제로니모의 모험
15:30 바두와 친구들/45 마야의 모험
16:00 딩동댕 유치원㊋
16:20 파들리팜/30 꼬마버스 타요
16:45 춤추는 곰, 콩야㊋
17:00 방귀대장 뿡뿡이㊋
17:10 시계마을 터키톡
17:25 부릉부릉 브루미즈
17:4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8:30 곤/45 정글북
19:00 뉴스/20 집중기획
19:30 지식발굴 프로젝트
20:2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2번국도〉
21:50 다큐프라임〈우쿨 알타이를 가다-4부 알타이를 노래하는 카이치〉
22:45 극한직업
23:15 인문학 특강
24:05 스페이스 공감 1〈이장희〉
1:00 스페이스 공감2〈슬란 오브 더 디스코〉

지역민방
TJB (대전) 042-281-1101
13:30 맛있는 아시아 푸드헌터스페셜
14:10 BBC특선시리즈〈서바이버〉
15:10 내 고향 스페셜
18:35 생방송 투데이
CJB (청주) 043-279-3800
11:00 전국 톱10 가요쇼
18:05 미래로의 도전, 세계의 하이테크
18:50 TV를 말하다
24:40 TV특강 행복플러스
KNN (부산 경남) 051-850-9000
12:30 공개클리닉 웰㊋
14:10 전국 톱10 가요쇼㊋
15:00 제9회 도시농업박람회
18:05 생방송 투데이
TBC (대구) 053-760-2200
14:00 하늘에서 본 지구
18:20 화첩기행
23:20 공간다큐〈그 안에〉
24:20 TBC시사다큐
UBC (울산) 052-228-6200
12:30 TV특강 행복플러스
17:35 세상발견 유레카
18:25 열린예술무대 뒤란
20:35 프라임뉴스
KBC (광주) 062-650-3094
12:30 테마스페셜㊋
14:10 건강클리닉㊋
15:10 인문학열전
17:30 생방송 투데이〈1, 2부〉
JTV (전주) 063-250-5350
11:00 미래의 도전 세계의 하이테크
12:30 TV특강 행복플러스㊋
18:20 다큐멘터리〈희망〉
18:50 영상다큐 전북인 이야기
G1 (강원) 033-248-5000
12:30 특선다큐〈21세기 신동력 농업의 신바람〉㊋
17:50 세상발견 유레카
18:40 생방송 투데이 강원
OBS (경기 인천) 032-670-5000
12:10 맛있는 아시아 푸드헌터
18:10 다큐월드〈지구절경기행〉
22:00 사투
23:05 건강버라이어티 올리브
24:05 시네마〈눈먼 자들의 도시〉⑲